

데스크시각



송기동
예향부장

“Dog(개)TV도 있고 낚시TV도 있는데 문화의 나라 대한민국에 국악TV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김용만 연출감독)
“듣기만 했던 ‘국악’ 이제는 보고 싶어요!”(소리꾼 김봉영)
“국악 TV로 발돋움하여 국악 전성시대를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황병기 가야금 명인)
최근 국악TV 채널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개설된 가정 ‘국악사’(국악TV 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에는 연일 국악인과 문화 예술인, 국악 애호가들의 릴레이 응원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악 작곡가이자 가야금 연주자인 황병기 명인과 춤꾼인 이예주(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전 교수, 젊은 소리꾼 남상일을 비롯해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임용된 성 힐러리 교수, 다류 ‘직지코드’를

국악TV 개국을 허(許)하라

연출한 우광훈 감독, 해금 연주 그룹 ‘고갱이’, 광주 시립창극단, 목포 소리터 등 각계각층에서 릴레이 인증 샷을 올렸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뉴저지 등 해외 교민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1일 현재 ‘국악사’에 가입한 회원 수는 6300여 명. 하루 100~2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낚시·게임·어린이·바둑·여행 등 100여 개의 별의별 전문 채널이 경쟁하는 요즘, 국악TV 개국은 이뤄질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들리는 판소리

오사이 출퇴근길에 라디오로 국악방송을 즐겨 듣는다. ‘아리 오나라 업고 놀자’로 시작하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이나 이생강 명인의 대곡과 임동창의 피아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썸머타임’ 등 다채로운 우리 음악을 접할 수 있어 좋다. 개인(閒暇), 매일 국악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느낌을 받곤 한다.
서울 국악방송 채널을 일부러 고정시키고 듣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말,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굿(Good) 보러 가자’ 공연에서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을 들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무대에 오른 안 명창은 ‘상여 나가는 대목’과 ‘젓동냥하는 대목’을 들려주었다. 구성지고 웅골

찬 명창의 소리가 재미미진 한데 군데군데 한 자리가 섞여 있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 사실을 구해 읽어 보았다.
“산첩점(山疊岫) 노망망(老茫茫)에 다리가 아파서 어이 가며/ 일침점(日沈沈) 월명명(月明明)에 주막이 없어서 어이 가리.” 한자 말도 그렇지만 우리말로 운율을 살린 사설은,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재미있었다. 이때 얻은 결론은 ‘아는 만큼 들린다’는 깨달음이었다. 이처럼 판소리 뿐만 아니라 한국무용, 기악 연주 등을 소리만이 아닌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영상시대 맞아 공익채널로

‘한국 문화의 중심’을 표방하는 국악방송은 지난 2001년 첫 라디오 전파를 송출했다.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남원, 전주, 강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대전까지 연차적으로 개국하며 전국을 가청권으로 하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최근에는 자체 제작한 ‘꿈꾸는 아리랑-아리랑 만들기’가 한국PD연합회 주관의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국악TV 개국은 아득하기만 하다. 국악방송은 3년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TV’를 운영하면

서 케이블 채널 개국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년 ‘예산 확보’라는 문턱을 한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악TV 개국을 위한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예산결산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그래서 올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악 관계자들은 정부의 관심 부족을 지적한다. 결국 국악방송 TV 개국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가 국악의 백년대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악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안다. 특히 판소리는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판소리의 세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 차례 해외 공연을 다녀온 안숙선 명창은 “판소리가 해외에서도 통한다. 지막을 제공하면 (판소리를 들으며) 외국인들도 먼저 울고, 먼저 웃는다”고 말한다.
‘귀명창’은 고사하고 우리 음악에 대한 ‘문화한’, 또는 ‘청맹(靑盲)과니’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느니만 못하다’(百聞不如一見)고 했다. 서양음악의 편식을 끊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TV를 통해 다채로운 우리 음악을 자주 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song@kwangju.co.kr

社說

군산대 입학금 폐지...다른 대학도 동참하길

국립대인 전북 군산대학교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입학금 폐지는 그동안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 온 만큼 다른 대학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군산대는 최근 교무회의를 열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신입생들은 16만8000원의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됐다. 올해 기준 군산대의 등록금 수입 292억4000만 원 가운데 입학금은 3억4000만 원으로 1.2%가 채 되지 않는다. 등록금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경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이에 따른 재정 위기로 대학들의 위기가 깊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대의 과당성 있는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이 투명

하지 않아 대학생 및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 왔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특히 올해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이 14만9500원인 반면 일부 사립대들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대학마다 입학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일부 단체는 “대학이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나 다른 국·공립대 또한 이번 군산대의 결정을 본보기로 삼아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나아가 입학금이 비싼 사립대들까지 공동보조를 맞춰야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남 지역 5·18사적지 종합 관리 서둘러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던 전남 지역 5·18사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남 지역 사적지는 8개 시·군에 총 74곳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안내판 설치에 그쳤을 뿐 관리가 부실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5·18사적지는 화순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목포 12곳, 나주 11곳, 해남·영암·함평 각 8곳, 강진 7곳, 무안 6곳 등 총 74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곳들은 사적지 지정과 관리가 시·군별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적지 알리미의 디자인·크기 등이 통일성 없이 제각각이고, 설명문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기도 해 사적지라 부르기에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광주시가 5·18기념사업 차원에서 지난 1995년부터 27곳의 사적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적지 청소·점검은 5월 단체 회원들이 주 2회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전남 지역은 1996년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세우고도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다 보니 사적지 지정·관리가 지자체별로 진행되면서 법률적·행정적인 사적지가 아닌 임의사적지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둘러 보면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비롯됐지만 항쟁은 전남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럼에도 5·18기념사업 추진이 광주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전남 지역 5·18기념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는 9월께 전남도와 도의회가 5·18사적지 관리 조례를 제정기로 했더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기회에 사적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전남 5·18사적지 순례 코스를 만드는 한편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담양·보성·순천·완도 등 5·18항쟁지에서 누락된 곳의 역사적 검증과 사적지 추가 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한 국 한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젊어서 아프고 희망이 없어 더 서러운 청년들

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에 사생결단으로 도전하지만 이것 또한 소수만이 선택받아 여전히 바늘구멍인 걸 여짜라.
올 4월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는 17만2000여 명이 응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높은 경쟁률 속에 치러진 시험에서 공무원이 되는 ‘가문의 영광’을 차지하는 응시생은 고작 4910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약 3%만 선택받았다. 따라서 97%의 응시생은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거나 포기하는 처지이다. 한 두 번 시험에 낙방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비좁은 고시원,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등에서 취업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30대를 보면서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면 그랬을까’하는 비통함이 앞선다.
지난해 청년층 공시생은 25만7000명, 19~34세 취준생의 68.2%가 부모 진지로부터 생활비 일부 도움을 받는다. 또한 취준생 67.6%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며 50.2%가 공무원·임용시험 준비하며 68.8%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무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취업실패로 스트레스·우울증이 많으니 정신건강과 병·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취준생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며, ‘내몰리는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이 ‘일자리 늘리기’인 만큼, 청년일자리 창출을 국가적 과제로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한 사회를 떠받치고 나라를 짊어질 청년들을 정부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랴.
그들은 바로 생산계층인 동시에 소비계층이며 사회를 주도할 계층이므로 청년층에 더욱 눈길을 돌려야 한다. 즉, 일자리 제공과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속에 가정의 이루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결혼 미루기, 초혼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 내수침체, 미분양 아파트 등 경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7월 일자리 11만 개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11조 333억 원의 추경안이 진통 끝에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공식화한 만큼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개인)의 경제성장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야 할 것이다.

은전한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경제가 안정된다. “기업에서 고용 늘릴 환경이 되지 못하여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세금을 쏟아 부어 해결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특히 재정 풀어 3% 성장을 기대하지만 기업의 활성화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공약(81만개 일자리)으로 인해 ‘일자리 수치’에 얽매어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을 늘려서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국가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전 실현 가능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엔 바늘구멍만큼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지 않네요.” 청년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공식화한 만큼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개인)의 경제성장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야 할 것이다.

기 고



안 주 희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사무계장

나라사랑은 청렴한 공직생활에서 시작된다

호남지역은 예부터 이 같은 청렴한 관료인 청백리가 많은 고장으로 꼽힌다. 특히 장성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이자 청백리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장성군 삼계면 출신 ‘청백리’ 송흠(1459~1547) 선생의 호는 ‘멈출 줄을 아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지지당(知止堂)이다. 선생의 호는 노자의 도덕경 제44장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따라서 오래 갈 수 있다.(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와 맞닿아 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곧, 청렴과 검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송흠 선생도 자신의 호처럼 멈춤을 미덕으로 알고 평생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는 51년간 내·외직의 관직생활을 하면서 근무한 곳마다 청렴한 성품으로 일곱 번이나 청백리로 추신되기도 했다.
호남 대표 청백리를 논할 때 아곡 박수량(1491~1554) 선생도 빼놓을 수 없다. 박수량 선생은 지금의 장라금인 한성관 윤, 호조판서 등 39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은 날이 한 달에 절반

이나 되고, 집은 비가 썰 정도로 청빈하게 생활했다고 한다. 그의 서울 공직생활도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변변한 집 한 칸 갖지 못했다.
이를 전해들은 명종은 크게 탄복해 장성군 아곡리 하남골에 99칸의 집을 지어 청백당(淸白堂)이란 이름과 함께 하사했다. 현재는 ‘청백한옥’이란 이름으로 개관해 한옥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박수량 선생은 ‘백비(白晝)’ 일화로도 후대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선생의 비석은 아무런 글자가 없어 ‘백비’로 불린다. 선생은 세상을 떠났을 때 ‘묘도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명종이 크게 감동해 서해바다 암석을 골라 하사하면서 “박수량의 청백을 알면서 빗돌에다 새삼스럽게 그가 청백했던 생활상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청렴을 잘못 아는 결과가 될지 모르니 비문 없이 그대로 세우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청렴은 오래전부터 당연시대로 왔지만, 최근 대형 권력형 비리 등이 터지면

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탓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정부 부처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호남의 대표적 인 선비의 고장인 장성을 찾아 백비를 견학하는 등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국가보훈처도 청렴을 화두로 옛 선조들이 남긴 청렴한 삶과 정신을 본보기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분들이 영면에 계시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도 반부패·청렴문화 체험공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그 어느 기관보다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장성 박수량 선생의 ‘백비’ 등 청렴 유적지 탐방을 시작으로 청렴 SNS 캠페인 ‘나부터 청렴하기’ 이벤트, 청렴술로 된 공모 등으로 생활 속에서 청렴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공직사회의 청렴 정책들이 순간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실천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無 等 鼓

토속 음식

10여 년 전 여름, 신안 증도에서 맛본 민어탕을 잊을 수가 없다. 옹도라도 리조트에 머물렀지만 토속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면소재지 음식점에 들러 민어를 주문했다. 회를 먹자 뼈째 폭 근 민어탕이 나왔다. 고추장을 넣지 않고 지리 형태로 끓인 탕이었는데 뼈에서 우러난 국물이 쌀뜨물처럼 희뿌연 빛을 냈다. 이곳 사람들이 민어탕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민어곰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여름 보양식으로

왜 민어를 최고로 치는지도, 그때 맛을 보고 나서 알았다. 민어는 ‘해풍 견정’이라고 해서 1주일 정도 바닷바람에 말린 것을 최고로 친다. 증도 옆 섬 임자도는 민어의 고장으로 민어곰탕이 유명하다. 건정 민어탕을 끓일 때 넣는 재료도 각기 달랐는데 남자들 먹을 것은 더덕을 넣고 여자들 것에는 산도랏(산도라지)을 넣었다. 특히 산도랏 민어곰탕을 먹으면 젖이 쏙속 나온다 해서 산모들에게 인기였다.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 완도 소안도는 일제시대 갑옥 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옥살이하고 나온 이들을 위한 보양식이 발달했다. 자연산 전복을 찹쌀과

함께 웅기그릇에 넣고 물을 부은 뒤 웅기를 진흙에 파묻고 다려 먹기도 했는데 갑옥은 마른 복숭이다. 주낙으로 잡은 복어의 독을 제거한 뒤 잘 말려 된장, 고추장, 깨소금을 넣고 몸통을 벗겨내고 튀어 먹시루에서 딱을 찌듯이 했다. 두 시간 정도 찌낸 복어에 참기를 올려서 먹으면 어혈과 고문으로 인한 장독을 빼는 데 최고였고 맛으로도 따라올 음식이 없었다.
고흥 연흥도에는 ‘쫄팽이’ 요리가 있다. 쫄팽이는 우럭과 같은 어종으로 쏘뽕이라고 하는데 다음 바리에 버금갈 정도로 귀하다. 머리가 크고 뼈가 익어서 우럭처럼 탱으로 많이 먹지만 별미는 무침이다. 포를 뜯 살과 잘게 다진 뼈를 양푼에 담고 소금 간을 살짝 한 후 막걸리 식초와 상추 등 야채를 넣고 버무리면 비결 음식이 된다.
전남도가 섬 토속 음식 40개를 채록해 레시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 섬을 누리며 사라지는 토속 음식의 요리법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긴 성과물이다. 피서철, 전남 섬에서 맛보는 토속 음식은 여행의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우편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